

이야기 5: 엘리야

주제말씀
[열왕기상 17: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일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만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 주셨어요.

그때, 나뭇가지를 줍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어요. “지금 내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첫눈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과부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부탁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부탁한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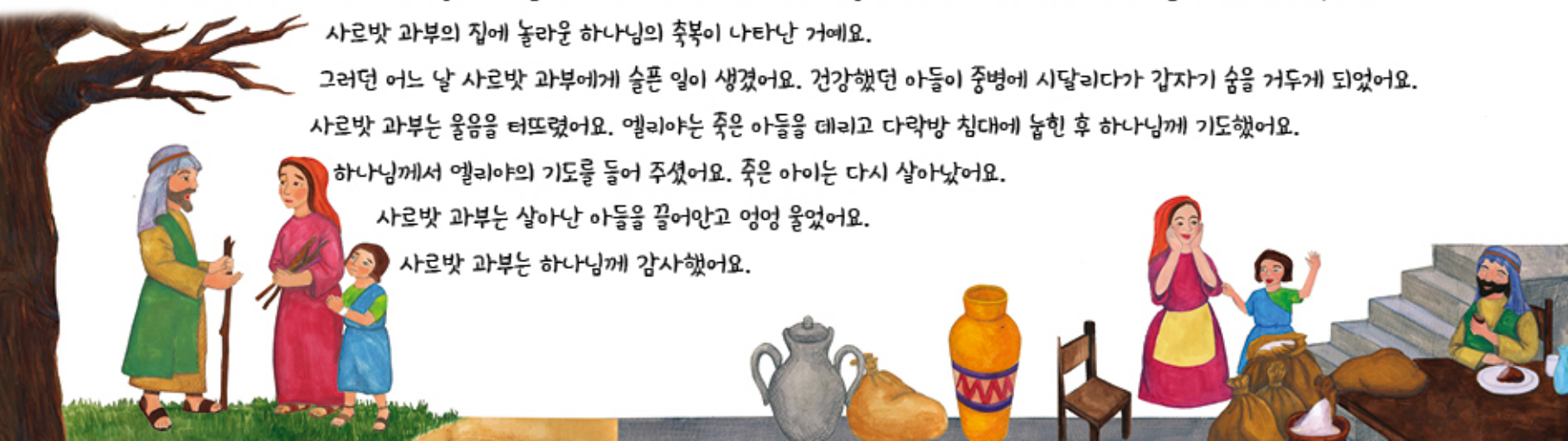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사르밧 과부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건강했던 아들이 중병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 침대에 눕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났어요.

사르밧 과부는 살아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활동 1.

밀가루 항아리에는 솜을 넣고 기름 항아리에는 노란색 종이를 붙여보세요.

준비물: 솜, 노란색 종이, 풀, 가위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열왕기상 17:24)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